

‘진짜’ 열하일기에서 연암 글 맛 느끼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열하일기 1·2·3’
박지원 지음·김철조 옮김

삭제·윤색 전 초고본 특징 고스란히
‘양매시화’ ‘천애결린집’ 새로 추가
조선시대 동성애까지 담겨

2000) 선생이 소장하던 초고본(초고본 계열 책)이 영인돼 공개되자 이를 검토해 완역본을 내놓았던 것이다.

달리진 개정판 ‘열하일기’는 ‘열하일기’의 실제적 모습은 물론 박지원의 생생한 숨소리까지 느낄 수 있도록 원래 내용에 충실했다. 책에는 자기검열이 이루어진 여타 필사본에서 느낄 수 없는 초고본만이 지닌 특징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지금까지 이렇거나 글의 제목만 알려져 있고 수록되지 못했던 몇 편의 글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양매시화’, ‘천애결린집’, ‘태학기’ 등이 그것인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짧은 해제 등을 수록했다.

초판에 비해 도판 역시 많이 바꾸고 추가한 점도 눈에 띈다. 김철조 교수는 여러 번 중국 현지답사를 통해 관련 유적이나 유물을 탐나는 대로 촬영하고 확보했다. 연암이 보았던 유적이나 유물의 실제적 모습을 직접 독자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인 셈이다.

김 교수는 역사서문에서 독자가 이 시대 현실에 맞는 주제를 찾아내고 음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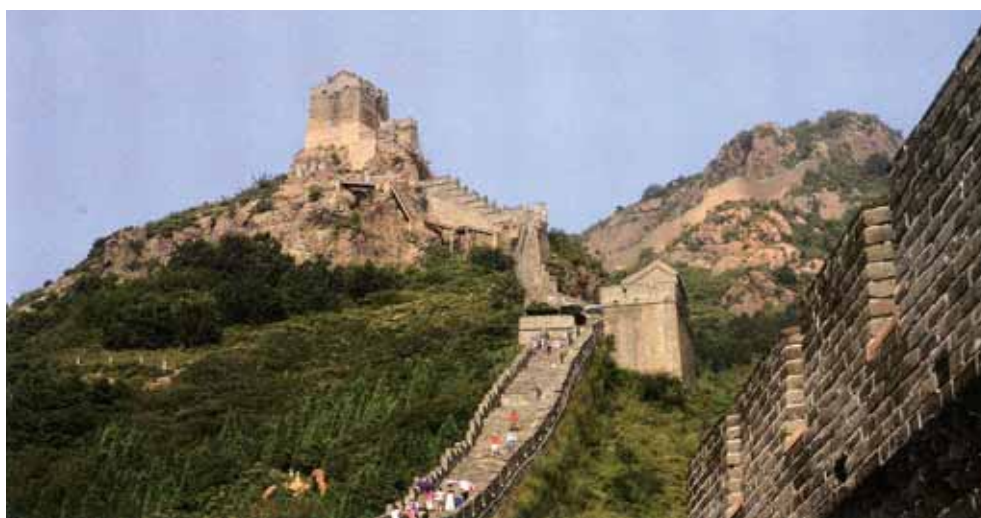
“요컨대 고전의 현재적 가치를 찾는 문제는 전적으로 독자의 몫인데, 우리는 텍스트의 정독을 통해 ‘있었던 세계’ 그리고 있는 세계에 대한 비판과 통찰을 통해서 있어야 할 세계를 전망하고 모색한 것”이 ‘열하일기’의 진정한 주제라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다.”

〈돌베개·각 권 3만 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문학박사·전남대 강사, 저서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



각산 정상의 만리장성.



‘열하일기’



청나라 강원의 ‘노하독운도’.

“어제 아침에 우연히 명륜당 오른쪽 문 가리개 아래에 있었는데, 기러천과 왕삼빈이 팔짱을 끼고 목을 나란히 하여 왜나무 뒤에 서 있더니 한참 뒤에 입을 맞추고 허를 뺐더군요. 마치 전각 위의 얼룩무늬 목을 한 비둘기처럼 하였는데, 사람이 가리개 사이에 있으면서 훑쳐보는 줄도 모릅니다. 왕삼빈은 수도 없이 음란한 교태를 간드러지게 뿔뿔이다.”(본문 중에서)

조선시대 최고의 문학 작품을 고르다면 많은 이들은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조선시대 최고의 여행기’, ‘조선 최고의 명문장’이라는 수사가 따라붙는다. 그러나 18세기 당시만 해도 ‘열하일기’는 내놓고 볼 수 없는 ‘빨간책’이었다. 오늘날로 하면 ‘블랙리스트’나 다름없었다.

‘열하일기’는 연암 박지원의 중국 여행기이다. 연암은 1780년 청나라 건륭 황제의 70회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단에 끼어 중국을 다녀왔다. 당시 공적인 소임이 없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던 박 지원은 북경 여행과 함께 전인미답의 열하 지방을 체험할 수 있었다.

열하 여행 이후 3년에 걸쳐 ‘열하일기’를 완성했지만, 연암은 그 기간 동안 자기검열을 해야 했다. 초고도 완성하기 전에 일부가 주변 지인들에 의해 필사되었고, 어느새 한양에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연암체(燕鴨體)라는 새로운 글씨 문체가 생겨날 정도로, 당시 문인들과 지식층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열하일기’는 당대 문단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언급대로 새로운 글씨기 시도에 환호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반청(反淸) 사상을 풍자하고 양반 사대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금서’ 취급을 받았다. 필사를 통해 전파된 탓에 여러 개의 판본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삭제·윤색되기 이전 원래 모습의 열하일기가 출간됐다. 김철조 영남대 교수가 우리말로 완역한 개정판 ‘열하일기’는 초고본 등을 비교해, 누락되고 변형된 부분을 바로잡은 것이다. 이전에 김 교수는 2009년 필사본을 토대로 열하일기를 우리말로 번역한 바 있지만, 2012년 이가원(1917~

조남주 외 ‘현남 오빠에게’

다양한 문화 권력으로 ‘페미니즘’ 이슈가 한창인 현재 국내 최초 ‘페미니즘’이라는 테마 아래 발표된 소설집 ‘현남 오빠에게’가 발간됐다. 성차별이 만연한 이 시대 뜨거운 현장 보고서가 되어준 ‘82년생 김지영’의 조남주 작가, 활발하게 활동 중인 최은영, 김이설, 최정화, 손보미, 구병모, 김성중 등 여성 작가 7인이 함께했다.

늘 누군가의 며느리, 아내, 엄마, 딸로만 취급돼 살아온 ‘김지영’ 씨의 부당한 성차별의 기록에서 한 걸음 나아가, 또 한명의 ‘김지영’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일곱 편의 이야기는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이후 촉발된 다양한 페미니즘 선언과 활동이 펼쳐진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겐 가슴에 오래 머무는 ‘이야기’다.

‘현남 오빠에게’는 조남주 작가가 ‘82년생 김지영’ 이후 처음 발표하는 소설이다. 서울에서의 대학생활이 낯설기만 했던 스무 살 ‘나’는 여러모로 도움이 되어준 남자 친구 ‘현남 오빠’에게 의지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점점 가르치려 드는 현남오빠에게 불편함을 느낀다. 작가는 ‘나’가 여성으로서 일상에서 느끼는 어떤 불편함, 어떤 꺼림칙함을 ‘폭력’이라 느끼기까지의 긴 시간을 돌아보고 고백하는 심리 소설이다.

‘당신의 평화’(최은영)와 ‘경년(更年)’(김이설)은 각각 서른 중반을 지난 여성 ‘유진’과 광년기에 접어든 두 아이 엄마 ‘나’의 이야기다. ‘당신의 평화’는 만발 ‘유진’이 그녀의 엄마 ‘정순’에게서 받은 오랜 집착과 애증 어린 마음의 양금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다.

〈산책책방·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비사이 마갈릿 지음·황미영 옮김 ‘배신’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배신’을 당한다. 배신은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지만, 정치와 경제, 역사적 사건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물론 자신이 배신을 당하지 않아도 가까운 주변 사람으로부터 배신의 사례를 전해들기도 한다. 그러나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기 때문인지 ‘배신’이라는 단어가 큰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물론 배신이라는 개념과 배신자와 배신행위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많지는 않다.

그렇다면 배신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의로운 내주고받자라 해도 어떤 이에게는 중상모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중의 눈에는 영웅으로 보이기도 한다. 예루살렘 히브리대 철학과 명예교수 아비사이 마갈릿이 펴낸 ‘배신’은 간통과 변역, 배교, 변절 등 다양한 형태의 배신을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 개인적 사례를 들어 다각도로 이야기한다.

책에는 12사도 중 한 명인 유다의 배신 이야기부터 그리스군의 속임수가 돋보인 트로이의 목마, 16세기 가톨릭 탄압에 저항하며 ‘화약 음모 사건’을 일으킨 가이 포크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또한 19세기 말 프랑스를 분열시킨 드레퓌스 사건,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독일에 저항한 지도자와 부역한 지도자의 상반된 주장 등도 담겨 있다.

저자는 “배신이라는 개념은 개인 간의 관계를 통해 그 보편성과 힘을 얻지만, 개념을 확장해 제도까지 포함하는 더 큰 집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유편역사·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원순 ‘나는 가드너입니다’

롱우드가든은 영국의 큐가든이나 위슬리가든 같은 보태니컬 가든(Botanical Garden) 정통 식물원은 아니다. 식물 종 수집을 목적으로 두기보다는 가든 디자인, 원예, 교육, 그리고 예술로 일반 대중에게 영감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 원예교육에 중점을 둔 식물원이다. 20개의 옥의 정원과 20개의 온실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최고의 정원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USA 투데이 선정) 사계절 아름다운 디스플레이로 유명하여 매년 15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현재 에버랜드의 가드너로 재직 중인 저자 박원순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롱우드가든에서 체험한 가드닝과 아름다운 정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엮은 에세이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원예학과를 졸업한 후 출판사에서 편집기획자로 일했다. 꽃과 정원이 좋아 아내와 딸을 데리고 제주도도 떠나 여미지식물원에서 4년간 일하며 가드닝 실무를 익히던 중, 보다 체계적인 가드닝 수업을 받고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 중 하나인 미국의 롱우드가든에서 1년간 국제 정원사 양성과정을 이수했다.

저자는 미국에 도착한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5월에 이르기까지 일 년 동안 온실과 옥의 정원, 재배하우스, 조지배양실 등 롱우드의 곳곳에서 가드닝 실무를 배우며 남긴 사진과 글을 계절별로 엮어냈다. 백여 컷의 생생한 정원 사진과 사계절 가드닝의 기록은 식물과 정원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독자들에게 신선한 임을거리와 불거리를 제공한다.

〈민음사·1만7500원〉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